

# 중동 불확실성, 물가, AI 자금조달 등 투심 압박, 3대지수 하락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\_yunjeong.kim@ls-sec.co.kr  
RA 성현영 \_hyseong@ls-sec.co.kr

## 중동 확산 공포, 기술주 유동성 경색 우려에 증시 약세

- 미 증시는 DOW -1.87%, S&P500 -1.62%, NASDAQ -1.98% 하락. 산업재, 기술주, 임의소비재 약세, 필수소비재, 에너지 강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-3.6%. 지난 알파벳 유증에 이어 슈퍼마이크로컴퓨터(-28.0%)의 70 억 달러 규모의 주식발행 공시가 고금리 장기화 국면 속 기술주의 유동성 경색 우려를 자극. 마감후 실적 발표한 오라클(-1.5%) 역시 건조한 실적에도 자금조달 계획 발표 후 시간외 약세
- 관련해 비클레이즈는 AI 하드웨어의 자본집약적 한계가 드러나며, 공급망 전반의 EPS 희석 공포가 차익실현을 촉발하고 있다고 코멘트

## 트럼프의 경고, 미-이란 종전은 다시 불확실성 국면으로

- 이란의 미군 헬기 공격 이후 보복성 공격이 오가며 갈등 양상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너무 오래 미뤘다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경고.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또한 오늘 이란 내 핵심시설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하며 유가 상승폭 확대 정규장 기준 WTI \$90.0(+2.1%) 마감했으나 선물시장 \$91.8(+4.1%)
- 미국내 원유재고는 7 주 연속 감소. EIA 주간 원유재고 전주 대비 -722.7 만 배럴, 예상치 대비 큰 폭의 감소. 휘발유 재고는 +18.6 만 배럴, 소폭이지만 2 주 연속 증가

## 에너지에 의한 CPI 부담, 다만 예상치 부합

- 5 월 CPI YoY +4.2% 전월비 ↑ · 컨센 부합, MoM +0.5% 전월비 ↓ · 컨센 부합. 상승분은 60%가량 에너지 가격(MoM +3.9%) 주도. 5 월 근원 CPI YoY +2.9% 전월비 ↑ · 컨센 부합, MoM +0.2% 전월비 ↓ · 컨센 하회
- JP 모건은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지만 5 월 고점 가능성 제시, 추가 악화 가능성 및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진단. 다만,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 후반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
-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과를 위한 비밀작전 수행이 진행되어왔음을 공개하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발언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MCI	슈퍼마이크로 컴퓨터	-28.0%	주식 및 주식 연계 자금 조달을 통해 \$7B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발표. 최근 수주한 \$39B 규모의 AI 서버 주문 소화를 위한 부품 구매 목적. AI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방증하는 한편, 주주가치 희석 우려 부각되며 주가 급락
ORCL	오라클	-2.2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회계연도 4분기 어닝 비트 및 연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, 시간외 -7%대 하락중. 클라우드인프라 매출 급증(+93% YoY), 대규모 AI 계약에 잔여수행 의무(RPO) 성장 확인. 다만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예상치 하회. 또한 AI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'27 회계연도에 기발표된 \$20B의 ATM(At-The-Market) 주식 발행을 포함하여 총 \$40B 규모의 부채 및 자본 조달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 하락
CBRL	크랙커배럴우드 컨트리스토어	+22.6%	전일 실적발표. '25년 로고 변경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에도 불구하고, 회계연도 3분기 깜짝 흑자 달성 및 연간 가이드선 상향 조정에 주가 급등
NKE	나이키	-1.6%	월드컵 특수 기대에도 불구하고, 주요 IB들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 소식에 주가 하락. RBC캐피탈은 투자의견을 'Outperform' → 'Sector Perform', 목표주가를 \$70 → \$50로 하향. Citi는 투자의견 '중립' 유지, 목표주가 \$53 → \$47로 하향
ODFL	올드도미니언 프레이트	-5.1%	아마존(-2.5%)이 자체 LTL(혼적화물, Less-than-truckload) 화물운송서비스를 전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에 트럭운송업체 전반 약세. 아마존은 기존 아마존 물류창고로 배송하는 파트너들에게 LTL 서비스를 제공해 옴. 페덱스프레이트(-7.0%) 등 하락